

지역 한인 실물 경제 (7/2/2012)

요즈음 우리 지역의 한인 사업체를 다니다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문을 닫는 가게도 많고 언제 문을 닫을지 오늘 내일 하는 가게도 많다. 매상은 점점 줄어들고 건물 임대료는 주매상보다 더 많아진다. 인건비 이외에는 줄일 것이 없으니 종업원을 내보내고 가족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온 육신은 아프고 영혼은 고달프다. 주 6 일영업을 주 7 일 영업으로 연장하고 쉬는 날도 없이 문을 열어보지만 매상은 더 떨어진다.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니 마지막 수단으로 소비자 가격을 대폭 낮추어 보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다. 가격을 종전대로 올릴 수도 없다. 가게를 팔려고 내놓아도 이런 저런 문의만 있을뿐, 브로커는 함흥차사고 Buyer 는 감감 무소식이다. 야반 도주하는 사람도 많고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해 도망다니는 사람도 많다. 밀린 모게지는 언제 차압당할지 모르고 집은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 버틸 때까지 버티보지만 빚만 늘어난다.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그동안 피땀흘려 모아 놓은 돈은 곳감 빼먹듯이 빼먹어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 남은 돈이라도 없어지기 전에 가게를 살까하고 매물을 보러 다니지만, 이상과 현실은 멀기만 하다. 그나마 빚이 없고 나가는 돈이 적은 사람들은 견딜만 하다. 매상이 큰 가게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해도 수입이 조금 줄었을 뿐 견딜만 하다. 잘 되는 가게는 그래도 잘 된다. 감사하고 자중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못사는 사람이 문제다. 불경기일수록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해진다. 하늘에 기우제라도 드리는 심정으로 미국 서민 경제가 나아지기를 기다리지만 요망사항일 뿐이다. 미국 경제는 대량 생산 산업에 기반을 둔 실물 경제가 아니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금융 산업과 지식정보 산업과 첨단산업, 그리고 소비산업으로 익숙해진 사회다. 양극화 구조다. 2008 년 금융 위기로 2 조달러나 되는 막대한 빚을 내어 달러를 풀었지만 서민들에게 지급된 돈은 한푼도 없다. 부도 위기의 대형 금융회사들 빚 갚는데 대부분이 지출되었지만 실제로 그 돈들은 세계 금융자본을 쥐고 있는 그림자 정부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달러 발행권과 유로 발행권을 모두 쥐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위태로워도 미국만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은 달러다. 달러가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인 기간 동안에는 망해도 미국이 가장 늦게 망한다. 그동안 미국은 어느놈을 밟고 일어서든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면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행운아이지만, 국민 각자는 각성해야 한다. 이번 유럽 사태때도 미국이 검토한 가장 강력한 대안이 연방 준비이사회의 미국 채권을 맡기고 엄청난 달러를 또 찍어내자는 것이다.또 그들에게 빚을 지자는 것이다. 연방 준비 이사회가 미국 정부 기관이 아닌 그림자 정부의 소유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이다. 그림자 정부에게 빚이 많을수록 미국은 그들의 나라가 되어간다. 미국 시민들은 그림자 정부의 빚을 갚기 위해 불모로 잡혀있는 인질인 셈이다. 유럽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작금의 유럽 사태 해결도 빚을 얻어 수명만 연장할 뿐 근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한인 사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다. 먹는 음식 사업들은 대부분 흑인 동네가 아니면 다운타운에 밀집되어 있다. 뷰티 사업이나 디스카운트 사업등 스타트업도 대부분 흑인 대상이다. 라운드리 장치사업도 일용직이 모여 사는 흑인 동네이거나 스페니쉬 동네다. 한인들의 과일가게, 생선가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불경기에는 주 고객인 흑인들과 소수인종들의 실직률이 가장 높다. 그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마저 줄어들었다. 한인들의 주고객들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미국에는 그들이 일할 생산 공장이 없다. 생산 공장은 이미 신흥 개발국에 하청준지 오래다. 가난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단순 노동직과 일용직, 그리고 소비사업체뿐이다. 그들이 돈이 없으니 먹고 마시고 입고 소비하는 사업들이 부진할 수 밖에 없다. 유일하게 백인들을 상대하는 한인 사업이 세탁업인데 우리 지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즉 고객에 비해 세탁소가 너무 많다. 그런데다가 대부분이 비싼 쇼펍몰에 들어가 있다. 세탁소 평균 면적이 2,000 SF 라고 하면 임대료가 \$4,000 을 훌쩍 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면 임대료보다 낮은 주매상의 세탁소들은 분석을 해보지 않아도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유지가 안되니 소비자 가격을 낮추어 가격경쟁을 해야 하고 홀세일을 해야 먹고 산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기다 환경규제 강화로 장비 교체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먹고 사는 일차사업이 힘들면 카워시나 런드리업과 주유소 사업등 장치사업은 더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어렵다. 또 네일가게는 사람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키워 놓으면 도망간다. 그리고 옆에 새로 차린다. 건물을 포함한 사업은 사업체가 망하면 건물 가치도 급락한다. 주변 가게들이 모두 문닫는 판에 건물 임대 사업이라고 잘 되겠는가. 또 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식사업들 대부분이 어렵다. 한국사람들은 생존력이 거의 본능적이다. 어려우면 먹는 것 부터 줄인다.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민족이다. 당장 수입이 줄어들면 외식비를 줄인다. 먹는 업체가 어려워진다면 옷가게, 신발가게등 2차소비업체들은 말해 무얼 하겠는가. 하물며 교회 살림도 어렵다.

이리저리 모두가 어렵다. 쉽게 끝날 게임이 아니다. 결국 불경기가 장기화 될수록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아니 살아남는 자만이 강한 자다. 한국인에게는 들꿀 정신이 있다. 잡초 근성이 있다. 야생화의 강인함이 있다. 불경기에는 허황된 꿈의 사업체를 찾지마라. 각자의 형편에 맞고 위험도가 낮은 사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견디어야 한다. 불경기에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모두의 건투를 빈다.